

오피니언

다산포럼

송재소



지난달 모 일간지에는 우리나라 서점의 실태를 조사한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에 의하면 한국출판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249개 시·군·구의 서점을 조사한 결과, 경북 영암군을 비롯한 4개 군은 서점이 하나도 없는 ‘서점 사막 지역’이고, 강원도 고성군을 비롯한 30곳은 서점이 1개 뿐인 이른바 ‘서점 멸종 위기 지역’으로 파악되었다.

대도시도 예외가 아니어서 인구 5만 명당 서점이 1개 미만인 지역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역시 한국출판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1997년에 전국 5407개에 달하던 서점이 2011년에는 1752개로 줄었다고 하니 이래로 가다가는 머지않아 정말 서점이 ‘멸종’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서점의 위기를 실감할 수 있는 곳이 대학가이다. 대학가에 한두 개씩 있었던 서점들이 문을 닫고, 지금은 그 자리에 미용실, 술집, PC방, 양장점들이 들어서고 있다. 대학가가 이렇진대 다른 곳은 말할 필

요도 없다. 한가하게 구경하고 책을 고를 수 있는 동네서점이 사라진 지는 오래되었다. 한 때 호황을 누리던 온라인 서점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라고 한다. 이른바 5대 온라인 서점 중에서 대교리브로가 이미

폐업을 선언했고, 나머지 온라인 서점의 폐업도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서점은 책을 판매하는 곳이다. 서점이 사라진다는 것은 책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책이란 무엇인가?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의 가장 뛰어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는 데카르트의 말이나 “책 속에는 모든 과거의 영혼이 가로 누워 있다”는 카알라일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책은 인간의 영혼을 살려주는 가장 훌륭한 반역자이다.

중국 송나라의 정치가이자 문학가인 왕안석(王安石)도 이런 시를 남겼다. 가난한 자, 책으로 인하여 부유해지고(貧者因書富) 부유한 자, 책으로 인하여 귀해지며(富者因書貴) 어리석은 자, 책을 얻어 현명해지고(愚者得書賢) 현명한 자, 책으로 인하여 이로워지니(賢者因書利) 책 읽어 영화 누리는 것 보았지(只見讀書樂)

서점의 죽음

책 읽어 실패하는 건 보지 못했네(不見讀書樂) 책을 다소 공리적으로 평가한 느낌이 있지만, 그것을 읽음으로써 “부유해지고 귀해지며 현명해지고 이로워지니” 책을 사람들은 왜 멀리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책의 죽음은 부채질하는 가장 강력한 동전자는 인터넷이 아닐까? 사람들은 인터넷이 책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터넷은 단편적인 지식을 사냥하는 데에는 더없이 좋은 도구이지만

그곳은 지혜는 없고 지식만 가득한 공간이다.

또한 서점에서 향기를 풍기며 은근한 눈짓을 던지는 종이책의 다정함이 인터넷에는 없다. 인터넷을 통하여 과연 우리는 “과거의 가장 뛰어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겠는가?”

지난 연말의 치열했던 대통령 선거 때 어느 후보도 독서의 중요성을 말하지 않았고, 죽어가는 서점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다. 서점은 살아 있어야 한다. 서점은 우리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다. 서점이 존재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정신적 풍요를 느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시내버스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듯이 서점에도 일정부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또 하나 국제 슬로시티라 본부에, 반드시 종이책을 파는 서점이 있어야 할 것을 지정 조건에 추가하기를 제안한다. 서점이야말로 ‘느리지만 멋진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이 아니겠는가.

〈성균관대 명예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선장 잃은 민주호, 당 수습·재전 서둘러라

민주당의 쇄신 작업이 지지부진해 비난을 사고 있다. 대선에 참패했는데도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계파 갈등을 겪는 등 쇄신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비대위 원장으로 김한길, 원혜영, 이종걸, 이낙연, 박영선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고 한다. 하지만, 계파간 이견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비대위의 임기와 성격이 민주당의 쇄신을 견인하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5월18일까지이나 최근 3월 전당대회 개최론이 탄력을 받으면서 9월 선출되더라도 두 달 남짓에 불과하다. 따라서 당 쇄신보다는 공정한 전당대회 관리 쪽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은 대선 패배에 대한 현실적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 민심의 역풍을 맞을 우려도 크다. 실제로 민주당은 최근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 측에서 제기한 ‘안철수 대선 필승론’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서면서 반성은커녕 책임 회피와 기록권 지키기에 연연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따라서 민주당 내외에서는 당 쇄신과 혁신을 위해 비대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현재 구도대로라면 비대위원장이 선출되더라도 당내 세력간 적당할 타협이 이뤄지면서 쇄신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대선 패배의 충격파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은 제1야당의 연륜과 위상에 걸주어 실망스러울 정도다. 오죽하면 자체 대선 평가 토론회에서 “비대위원장도 만들지 못하는 역량으로 집권할 생각을 했는 지 자문해야 한다”는 고언이 나왔겠는가. 무엇보다 민주당은 처절한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정세성과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치개혁이라는 ‘안철수 현상’에 부응함은 물론 수권정당 측에서 제기한 ‘안철수 대선 필승론’에

한파에, 물가에 서민들의 삶 더 버겁다

서민들의 겨울나기가 힘들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혹독한 추위에, 가중되는 난방비에다 치솟는 물가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삶이 더욱 버겁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 노인 등 저소득층의 어려움은 과부로 느낄 정도로 대단히 심각하다.

실제로, 광주에서 지난 3일 오후 독거노인인 심모(79·동구 산수동) 할머니가 기름값을 아끼려고 보일러를 끄고 자다가 숨졌다. 이 할머니는 기름이 있는데도 보일러를 켜지 않고, 대신 전기장판을 약하게 틀어 놓고 잠을 자다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연일 계속되는 혹한에 서민들의 겨울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어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물가에 전장부지로 치솟고 있다. 대통령 선거 직후 정부의 통제력이 느슨한 틈을 노려 서민들의 식재료인 콩나물, 두부, 밀가루 등이 7~10%가량 기습적으로 오른 데 이어 배추와 무, 당근

등 채소류도 한파로 최고 200% 이상 뛰어 장보기가 겁이 날 정도다. 여기에 도시가스, 상수도, 택시 요금 등이 인상 계획을 확정했거나 추진 중이어서 삼중고를 겪어야 할 처지다. 통계청 조사처럼 인구 6명 중 1명이 연간 10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물가와 공공요금의 오르면 서민들의 실정살이가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물가를 관리·감축해야 할 정부 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물가관리에 나서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정부는 정권 말이라고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업체들의 답답 인상 등 불법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공공요금 역시 인상 요인이 있더라도 조정 시기를 적절히 분산시켜가게 하는 충격을 덜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자체와 사회단체, 시민들도 주변의 불우이웃에 대해 적극 관심을 갖고 온정의 손길을 보내야 할 것이다.

NGO 칼럼



이재창

무등산이 1972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40년 만에 도립공원면적 30.2km²의 2.5배에 해당하는 75.5km²가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 국립공원 지정은 1988년 영암 월출산과 변산반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 한 후 24년 만이며, 21번째의 국립공원이 된 것이다. 무등산은 예수님이 자기마을 갈릴리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던 것처럼 늘 우리 곁에 있어서인지 시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국립공원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 결과 이전에 지정된 국립공원

무등산국립공원 승격의 의미와 과제

들과 비교했을 때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등산이 24년 만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됨으로써 무등산의 브랜드향상은 물론 광주가 갖고 있는 민주, 인권, 그리고 평화의 이미지가 재정립되어 광주의 이미지도 고양될 것이다. 무등산의 우수한 자원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자연자원으로써 산이 문화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30여억씩 투자되던 시비가 절약되는 것은 물론 향후 5년간 1000억원을 투자하여 새롭게 단장함으로써 나타나는 경제유발효과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돼 관광수입이 증대될 것이다. 무등산이 단순한 국립공원애 머물지 않고 세계의 명산으로 가꾸기 위해서 무등산이 안고 있는 일들을 광주시민들의 참여와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한다.

첫째, 우리 단체와 광주시민이 시작한 무등산사랑 운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국립공원승격은 마치 신희부부가 신집살림을 손님들에게 보여주듯이 더욱 세심하게 준비하고 가꾸어서 아름답고 환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 둘째, 무등산국립공원 내 74.7%의 사유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여 거주지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물론 국립공원이 되었기 때문에 사유지를 국가가 매수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방대한 만큼 국가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단체가 시작하고 시민이 호응해 주셨던 무등산국립공원 땅 한 평 갖기 운동을 다시 한 번 일으켜서 공공유지를 확대하고 공원지역 내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상의 세 봉우리와 서석대·임석대 규봉의 주상절리는 지질학적인 관점에서 가치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더욱 정교하게 준비하여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먼저 국가 지질공원으로 지정하고 유네스코 자연유산이 될 때까지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국립공원 내 방공포대 이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등산국립공원이 세계자연유산이 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며 이미 지리산 노고단, 대구 팔공산의 군주둔 시설이 모두 이전되었고, 공중 방어 방식이 높은 산이 아닌 위상에서 한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섯째, 5개의 송전탑은 조망권을 해치지 않도록 통합을 원칙으로 하고 조망권이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전망탑을 세우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5년간 이루어질 국립공원 계획과 시설은 민관 협의체에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국립공원승격에 발맞추어 무등산을 사랑하고 가꾸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갖고 매진하여 무등산을 광주의 산에서 세계의 명산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선물하자.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운동본부장〉

기고



김용하

말도 많고 골랐던 18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끝났다. 일찍 선출된 보수진영의 박근혜 후보와, 막판까지 야권단일화라는 시너지효과까지 노린 진보진영이 예측을 불허하는 접전을 벌였지만, 보수의 승리로 끝났다. 역대 최고수준의 투표율이 증명하듯이 온 국민의 관심이 높았고, 양측이 얻은 지지표도 52대 48로 양분된 결과였다. 100만표 이상의 격차를 보이면서 첫 과반표를 얻어 당선되었지만, 반대로 역대 낙선자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고, 거의 과반의 진보와 개혁을 원하는 국민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어느 때와는 달리 보수와 진보세력이 총 결집하여 벌인 대선투전이었다.

사실 심각하게 대두 된 사회혼란과 대립의 가장 큰 화두가 되는 진보와 보수이념도 어떤 사안에 대해 어디까지가 진보이고, 보수인지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다. 따라서 사람들은 대중매체나 선동가들의 주장과 아전인수식 해석에 주체성이 없이 부화뇌동하거나, 그것을 진리로 신봉하고, 맹종하여, 혼란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는 이제부터라고 생각한다. 누구를 지지했건 간에, 국민민복과 국가발전이라는 대의에는 차이가 없고, 다만 목표달성하기 위한 방법의 차이라고 본다. 이제에는 과거의 역사적 평가에 따른 지역적, 계층적 갈등과 대립보다는 화합과 소통과 합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의식이 더 요구된다. 내부적으로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고, 권력이나 이권을 가진 자로부터 못 가진 사람, 소외된 사람들과 같은 사회적 격차를 더행기고, 그늘진 곳을 잘 살펴야 할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북한을 비롯한, 주변의 여

러 나라가 새로운 정권을 출범시키고, 자국의 자주권확보와 실리추구를 위해 국토분쟁 등이 날로 격렬해지고 있다. 이러한 때에 새로운 지도자는 먼 미래를 내다보는 거시적인 통찰력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려운 데를 살피고, 굶어 주는 미시적인 세심함을 겸비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최근의 우리 사회에서는 대선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때마다 후보 모두가 우선 표를 얻어 당선되고 보자는 심리 아래 지나친 선심성북지공약을 남발한 면이 없지 않다. 정책의 우선순위에 재원마련의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잔뜩 국민의 마음을 부풀려 놓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을 국가나 사회가 알아서 해주리라는 의태심과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오히려 성실한 사람이 역차별 받는 상황이 우려되기 도 한다. 박근혜 당선인이 지역별 계층별 소통을 도모하여, 민생을 챙기고, 국민이 행복한 국민대통합의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적하고 있다. 그러면 지도자만의 주장이나 노력만으로 가능한 일인가? 우리의 가장 큰 과제인 국민대통합을 이루어 국가가 발전하고, 글로벌시대의 선진국을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선진적인 지도자와 함께 모든 국민의 시대적 소명에 대한 투철한 공감대 형성과, 삶의 방식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변화에는 더 많은 자기희생과 양보와 관용이 요구됨을 인식하여, 우선 각자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려는 강력한 의식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며, 제도적인 지원이 지속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식의 개혁운동을 통해 변화의 당위성과 시대적 불가피성을 인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存亡은 필부유책(國家存亡匹夫有責)’이라는 말이 있다. 이제는 막연하게 대통령이나 지도자의 입만 바라보며, 일회일비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역사적 주체성을 갖고, 자율과 합리성을 발휘하여,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성숙 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한국시민자원봉사회 광주 총회장〉

있는 걸 보노라니 속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다고 한다. 필자도 자동차 동호회 사이트를 이용하는 데 얼마 전 자동차의 튜닝 때문에 관련 정보를 얻고자 해당 제목을 클릭했지만 해당 페이지는 자동차와는 전혀 상관없는 음란성 광고였다. 음란 사이트 불법 게재는 개인적 영리를 목적으로 검색량이 많은 블로그나 사이트를 상대로 이 같은 범죄를 자행하는 것이다. 포털사이트들이 인력을 더 들여서라도 이런 음란물들은 제때 걸러줘야 할 것이다. ▲김윤남·광주시 남구 방림동

블로그 활용 음란물 버섯이…포털사이트서 제때 걸러줘야

블로그와 소셜네트워크 시대이다. 인기 블로그는 수만, 수십만 명이 드나들고 소셜네트워크와 함께 디지털시대의 최고 홍보나 광고 매체 수단으로 커졌다. 그러나 열린 사회의 적들이라는 어느 책의 표현처럼 이런 소기능을 악의 기능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게 마련이다. 이 블로그와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해 유명 관련 기사를 삽입해 음란물을 홍보하는 신종 수법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야말로 진정 소통과 열린 공간을 우리 시대의 최고 가치로 여기는 디지털문화에 악의 축으로

활개치는 적들이 아닌가 싶다. 특히 클릭 수가 많은 언론사의 기사에 해당 검색어를 삽입하고 여성들의 사진을 버섯이 게재하는가 하면, “섹파(섹스 파트너) 구합니까?” “00여성 24시간 대기. 연락가능” 등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악용하며 사람들을 유혹한다. 얼마 전 유명 포털사이트에 자주 올라오는 한 블로거는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다 여성성의 하체 부위가 강조된 사진이 블로그 검색 순위 상위에 올라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전했다. 자신의 블로그에 들어오는 네티

즌들에게 사과하면서, 혹여나 그런 걸 보면 누군가가 악용한 것이니 오해 말아달라는 당부까지 했다. 그는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에 즉시 삭제요청을 한 뒤 거의 하루가 지날 때까지 해당 검색어 검색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만에 자신의 이름과 게재물이 음란물과 다른 유명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버섯이 게재되고 있는 것을 또 발견했다고 한다. 얼마나 갑갑하고 화가 나는 일인가. 또다시 삭제요청을 했지만 포털사이트의 처리가 늦어지며 인터넷에 한동안 올라

無 等 鼓

“햇빛과 바람이 바닷물을 익혀주기가 다라리면 시간의 레일을 타고 마침내 눈부시고 가쁜한 결정체(結晶體)로 찾아와 주는 귀빈.” 소설가 박범신은 소설을 통해 ‘소금’을 이렇게 정의했다. 토해 우리나라 천일염의 역사는 한 세기에 불과하다. 1907년 일제가 인천과 동래에 천일염 시험장을 만들며 첫 도입했고, 현재 천일염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신안지역에 천일염전이 만들어진 것은 해방 이후인 1946년이다.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이 만들어 온 전통적인 소금은 갯벌 흙을 갈아엎어 농축된 짚물을 끓여 만드는 ‘자염’(煮鹽)이었다. 짚맛을 내는 소금은 인간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무기물이자, 음식 맛을 조화시키는 조미료이다. 로마에서는 군인이나 관리의 봉급을 소금으로 주기도 했다. 또 소금은 김치와 젓갈 등 독특한 우리만의 식(食)문화를 낳았다. 된장과 간장 등 장(醬)문화도 소금없이 만들 수 없다. 이처럼 현대인들이 섭취하

는 모든 음식에 소금이 뿌려지며 이제 는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소금 섭취의 과잉을 우려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2006년 기준 우리나라 성인의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은 13.5g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권장량(5g)보다 2.7배 많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지난해 실시한 ‘짭맛 미각(味覺) 검사’ 결과 우리 나라 국민 10명 중 7~8명은 짭맛에 길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Na) 과다 섭취는 동맥경화와 고혈압 등 거의 모든 만성 질환의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외식업체나 식당에서 소금을 많이 넣는 이유는 ‘음식이 너무 짜서 못 먹겠다’는 임계점 이전까지 나트륨 농도를 올릴수록 음식 맛은 좋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과유불급’(過猶不及=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이라는 말처럼 ‘싱겁게 먹기’를 염두에 뒀야 할 때다. /송기동 체육부장 song@kwangju.co.kr

소금의 두 얼굴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汶洙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奇賢鎭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자서비스국	2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경부	2200-612	어른매체부	2200-62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육팀	2200-697	디자인국	2200-535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16	사진부	2200-693	기획사업국	2200-556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사팀	2200-571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